

사찰 찾아가 정보관리요령 전수

조계종 2006년 문화재 관련 주요사업

국내 문화재의 상당수가 불교계 문화재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1707건 중 65%에 해당하는 1105건이 불교 문화재다. 이 가운데 482건을 조계종 사찰이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조계종의 역할은 막중하기 이를 데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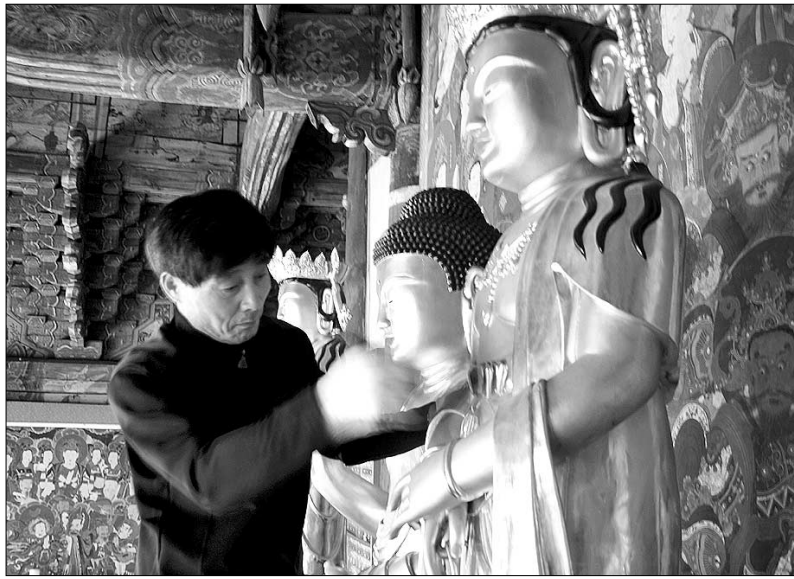
조계종 내에서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문화부(부장 탁연)가 올해 가장 공을 이기 될 사업은 △정보보존지원사업 △방재대책 수립 △신계사 복원사업 △불교문화재 소유권 확립 등이다. '정보보존지원사업'과 '방재대책 수립'이 문화재를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면, '신계사 복원'은 사라진 불교를 되살려 맥을 다시 잇는 작업이며, '불교문화재 소유권 확립'은 불교문화재들을 있던 자리로 되돌려 본래의 온전함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출토유물 공고기간 현실화 등 법개정 적극 추진 부당하게 소유권 상실한 문화재 반환 소송 전개 금강산 신계사 전각 7동 건립 등 복원 더욱 활기

■정보보존지원사업= 조계종 문화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보보존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찰을 찾아 유물보존상황을 점검하고 유물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며, 관계자들에게 관리요령을 전수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금년에는 20여개 사찰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중심에는 조계종이 지난해 9월 영입한 '유물포장의 대가' 김홍식 정보전문위원이 있다. 김 전문위원은 '무지' 탓에 잘못 관리되고 있는 유물의 바른 보존방법을 사찰측에 알려주고, 여건에 맞는 최상의 보존환경을 구축해준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70여일에 걸쳐 10개 사찰을 방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1개 사찰에 대략 7일 가량 소요된 셈이다.

김 전문위원의 서비스는 직접적인 보존 여건 개선에 보탬이 되는 물론 사찰 관계자들의 문화재 보존의식을 새로이 하는 자극제 역할도 하고 있다. 김 전문위원의



김홍식 정보전문위원이 천은사 극락보전(미타불)의 목은 때를 정성스럽게 벗겨내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문화부

할 단위로 진행된 경우는 있지만 조계종이 직접 개입한 적은 없다.

이 점에서 소송 불사 방침은 문화재 소유권 회복에 대한 조계종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방재대책 마련= 양양 산불로 인한 낙산사 화재 이후 조계종은 방재대책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기대했던 통도사·해인사·송광사 등 3개 사찰에 대한 사찰종합방재시스템 시험운영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문화부는 사찰종합방재시스템의 시험 설치 필요성을 널리 알려 내년 중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조계종 문화부는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32개 사찰을 대상으로 방재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신계사 복원= 2004년 시작된 금강산 신계사 복원은 3년차를 맞아 올해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대웅전, 만세루, 요사채 1동, 산신각을 지은 데 이어 금년에는 극락전, 나한전, 축성전(왕실의 원당 건축)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35>

미분과 적분

17세기는 서양에서 천재의 시대로 통한다. 신으로부터 이성을 해방시킨 데카르트부터 수학의 천재 파스칼에 이르기까지 천재가 넘쳐나는 시대였다. 태양의 왕이라고 불리는 루이14세가 프랑스에서 학술회의를 만들었던 것 역시 이 무렵이었다.

'천재의 시대'는 1690년대 뉴턴의 출현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행성의 운동에 대한 일반 법칙을 발견했다. 그리고 미분과 적분의 법칙을 발견했다.

미분은 잘게 쪼갬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세계 인구의 증가, 그것도 이 시점에서의 인구 증가율이라고 하자. 오늘 12시에 인구를 측정하고, 내일 같은 12시에 인구를 측정해서 차이를 알

을에서 부산이 아니고 서울에서 매우 짧은 거리를 지난 지점 사이의 공간적 증가율을 구했다면 이것이 미분이다.

바람의 세기의 미분은 곧 그 공간에서 생기는 공기분자의 시간적 증가율을 나타낼 것이다. 즉 서울에서 들어가는 바람이 부산에서 나가는 바람의 세기보다도 더 크다면, 두 지점사이(한반도에 공기분자가 시간적으로 늘어나는 것)인 미분과 적분의 법칙을 발견했다. 이러한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것이 공기분자에 대한 미분방정식이 된다. 실제로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는 가능하다. 한 예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현대과학에서 미분 방정식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다.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미분이나

이유없이 마음 허덕일때 차분히 관찰해 보라 오래된 인연의 '적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면, 증가율을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측정 간격을 하루로 하지 않고 1초, 아니 더욱 짧게 한다면 순간의 증가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짧게 해서 측정된 증가율을 미분이라고 부른다. 하루 후 측정된 증가율은 하루 동안 순간 순간의 인구 증가를 모두 다 더한 양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처음으로 자연 현상에 적용한 사람이 뉴턴이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만약 측정하고자 하는 양이 인구가 아니고, 바람이 지나가는 플럭스라고 하자. 흔히 과학자들은 이양을 단위 면적에서 1초에 지나가는 공기분자 양으로 나타낸다. 바람의 세기라고 해도 좋다. 서울과 부산의 바람의 세기 증가율은 서울과 부산의 바람의 세기 차이를 측정해서 거리로 나누어주면 얻을 수 있다. 만약 서

적분 또한 매우 주관적이다. 즉, 수만 년을 다루는 사람에게서는 하루는 미분해 해당할 만큼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대부분 과학기술자들에게 미분의 시간은 1초의 수조분의 일이 된다. 2GHz짜리 개인용 컴퓨터는 1초에 약 20억 번의 연산을 수행한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전자파, 혹은 전자의 움직임은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 미분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에 비해서 인간의 심장의 박동, 그리고 안이비설신로 외부세계를 이해하고, 뜻을 내는 것은 빨라야 천분의 1정도의 시간을 요한다.

이유 없이 마음이 허덕일 때, 하루에 한번이라도 가만히 앉아서 마음의 변화를 관찰해 보자. 이 마음을 있게 한 오래된 나의 인연의 적분을 느낄 수 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한국선학' 등재후보誌 선정

논문 인정·경비 일부 지원

한국선학회(회장 현가)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선학>이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이시장 허상만의 신규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선학회는 학술지 발행 및 학술대회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지원받게 됐으며, <한국선학> 수록 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백제미술 해석' 등 봄 강좌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원장 강우방)은 봄강좌 강좌를 1월 18일 시작한다.

강우방 이화여대 교수의 '한국미술사 강좌 III - 백제미술의 새로운 해석', 김기주 동덕여대 교수의 '화문강의 1-역대명화기(名畫記)', 김일권 고려대연구재단 연구원의 '한문 고전 강독-사기(史記) 읽기' 등 세 강좌가 각각 금·월·수요일마다 진행

의상대사의 화엄사상' 주제

삼성출판박물관 강좌 개설

삼성출판박물관(관장 김중규)은 '의상대사의 화엄사상'이라는 주제로 김상현 동국대 교수의 강좌를 개설한다.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오후 7-9시)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강좌의 수강료는 10만원이며 전화로 접수 가능하다. (02)394-6544



그림·문병성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4일개강

2006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중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고계대덕스님 및 교수님을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8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불교학개론·선사상 불교미술·불교사상·포교방법론 근원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 불교상당론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김호규(동국대학교)·최종석(금강대학교)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홍석스님(승가대학교)·황안스님(금강신원종재) 최봉수(동국대학교)·주명철(동국대학교) 최종석(금강대학교)·박종(동산불교대학교)	
2년 교과목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 법화사상·반야사상·화엄사상 불교사회복지론	암도스님(전포교원장)·김상현(동국대학교)·표주스님(동국대학교) 차차석(동국대학교)·김상영(승가대학교)·정명조(동국대학교) 박종(동산불교대학교)·정업스님(승가대학교) 보각스님(승가대학교)·김형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불교학과(200명) (영구반·주간반·통인반) (100명) (50명) (50명) 불교다도학과(50명) 불교미술학과(30명) 불교한문학과(50명) 불교경제문화학과(5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6년 1월 1일~ 2006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경구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경제문화학과)	통산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학 일시 불교학과 : 2006년 2월 4일(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불교다도학과·불교미술학과·불교경제문화학과: 2006년 3월 6, 7, 8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서울: 본 대학사무국 02)733-0333 ·부산: 부다가야서점 051)865-4383 ·대구: 삼성불교서점 053) 425-4097
 ·대전: 보문서점 042)257-0161 ·광주: 불일서점 062) 232-7542 ·제주: 예전 수보리 센터 064) 743-4184
 *특정시장은: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동산불교대학

공 제4회 연합회 포교사 합격자 고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서는 불교(교양)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2005년 12월 4일 시행된 제4회 포교사 불교교육능력평가고시를 실시하고 필기 및 면접에 최종합격자를 공고함.

동산불교대학	강영길 권영애 권현숙 김병남 김영민 김종필 남동창 박경숙 박종표 박찬원 박종수 배소정 백종훈 송 연 승규의 심영모 예강환 오정숙 유재정 이상철 이인선 이종현 이항욱 이호득 임동관 임종택 정동민 진신관 차성남 최상근 최탁환 하경숙 황현주 (33명)
경인불교대학	권재만 김영숙 김인선 김창배 김현수 박경숙 박승배 백은정 부현철 신종남 윤진교 윤혜숙 이판열 이홍경 최태순 (15명)
보현불교대학	강순희 김경호 김순식 김태안 신희용 오순자 윤복순 이동욱 이윤형 조관식 조규삼 최정관(12명)
덕산불교대학	박시자 박은주 유영옥 윤원순 윤학남 이경희 이미경 황승이 황현주 (9명)
새세계불교대학	안재덕 박병선 이애경 한미숙 (4명)
금강불교대학	김태웅 한정미 황애자 (3명)
경북불교대학	백부진 (1명)
불이선원불교대학	강희혁 (1명) (이상 78명)

■ 등록기간: 2006년 2월 4일 까지 ■ 접수 식: 2006년 3월 25일 ~ 26일
 ■ 장소: 만해마을(강원도 인제군)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 등록 및 접수교육비: 6만원 (소속학교 일괄접수바람)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문의 02)734-9595